

도교육청-전주시, 교육발전 '맞손'

서거석 교육감-우범기 시장, 교육협력 협약 체결...야호학교 시설 둘러본 뒤 청소년들과 대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 발전을 위해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시장은 20일 전주 야호학교에서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장경수 야호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하령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 문제 해결, 미래인재 양성 등 교육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 혁명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 협력 담당 부서를 두고 돌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전주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에도 관심을 가졌다.

서 거석 교육감과 우 시장은 협약식이 끝난 후 야호학교 시설을 둘러본 뒤, 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동안 꿈이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전주 야호학교에서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장경수 야호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없었는데 여기서 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과 우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미래를 준비해 가라고 당부했다.

전주 야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인생과 진로를 성찰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전주에서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이곳에는 학습실과 학생자치실, 스타디

움, 영화관, 밴드실, 강당, 카페, 요리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 시장은 "전주시와 교육청 간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자"면서 "시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학교와 가까워지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거석 교육감은 "천 명의 아이들이 천

가지의 자기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현장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전주 지역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주체인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의 교육협력이 아이들의 특성과 자질을 키워주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로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교육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서 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교육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정은성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류재신 전 전북교육감 별세... 향년 96세

'새 의지 참 교육' 내걸고 참교육인의 길 걸어와

류재신 전 전북교육감이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제대와 8대 전북교육감을 역임한 고인은 '새 의지 참 교육'을 전북교육 방향으로 정하고 변화와 혁신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평생을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온 참교육인의 길을 걸어들었다. 고인은 전북교육, 나아가 한국교

육 발전을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창안하고 추진했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고인은 특히 '사랑의 장학금'을 창설해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했으며, 전북교원 연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교원 자질 제고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전주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의 위상 강화에도 족적을 남겼다.

별인은 22일 오전 8시 30분 빈소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효실이다. 장지는 장수군 산서면 선영이다. /정은성 기자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공개 선발

도교육청, 시·고교학점제 분야 각 1명...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정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2023학년도 초·중등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진행한다.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이란 임용시 임기를 지정해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임기 만료 후에는 임용 직전 직위(원직위)로 복귀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전문성이 축적된 교사를 선발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발부터 교육경력에 기간제교사 경력을 포함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희망자는 응시원서 및 학교장추천서,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초·중학교 근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 근무 교사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1차 소양평가, 2차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소양평가는 교육활동 실적평가와 인성 및 동료교원 대면평가이며, 2차 역량평가는 정책보고서, 심층면접을 통해 특정 분야의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특정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자 한다"면서 "AI 교육과 고교학점제 분야에서 정책 추진하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계 음악학계 대표 학술대회, 전북대서

21~23일 개최... 10여개국 학자들 참여

전 세계 음악학계를 대표하는 국제음악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전북 대학교에서 열린다.

국제음악학회의 동아시아 학회인 IMSEA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미배)는 21~23일 3일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1년 9월 IMSEA가 한국에서 창립

된 이후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다. Kate van Orden IMS 회장(하버드대 교수)과 Laura Tunbridge IMS Directorium(옥스포드대 교수)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음악학자들이 참여해 60여 개의 논문 및 포스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학기술원 박주용 교수가 '음악과 과학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에 대

해, 그리고 UCLA Nira Eidsheim 교수가 'The Body as Music's Tenor'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음악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프로그램 등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www.imsea2022.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김동수·정혜인 조교 심폐소생술 경연 '장려상' 수상

전주교육대학교 김동수(체육)·정혜인(영어) 조교팀은 20일 제1회 전라북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심폐소생술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이다.

이에 전주교대를 비롯한 15개 일반인 팀이 참가, 17일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경연 당일 실력을 선보였다.

김동수·정혜인 조교팀은 상황극 시나리오를 구상해 환자 발견, 구조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절차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인정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내달 5일 어린이 체험행사 진행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오는 11월 5일 야생동물센터 체험행사를 마련, 참가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 어린이가 모두 가운을 입고 수의사가 돼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고, 진료실이나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체험한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5세)부터 초등학생(13세)까지다. 신청은 전북대 홈페이지(<http://www.jbu.ac.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이메일(rj081@jbu.ac.kr)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정은성 기자

이공분야 우수신진연구·최초혁신실험실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 문성철 교수



전주대학교 문성철 교수(산업공학)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공분야 '우수신진연구'에 이어 '최초혁신실험실'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우수신진연구' 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이공분야의 전임교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매우 뛰어난 연구과제를 선정, 2~5년 동안 연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최초혁신실험실' 지원사업은 우수신진연구에 선정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일부 연구자에게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비 및 장비 구축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 머신러닝 기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헬스케어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동공실험으로 뇌파를 추적하는 연구주제를 '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SCIE, IF: 6.167)에 교신지자로 게재하는 등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휴먼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실(HIDS Lab)을 운영, 자유로운 연구실 분위기에서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과제 참여 학생들에게 최대 인건비를 지원, 학·석사 연계과정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플라즈마 활용 피부치료기 상용화

전북대, 엔도비전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이 기업과 손잡고 플라즈마를 활용한 피부 치료기 상용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은 20일 오후 2시 (주)엔도비전(대표이사 정민호)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을 통한 추가 기술 개발에서 중·대형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진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엔 교수(양자시스템공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으로, 플라즈마를 활용해 기존 UV 램프 대비 10배 이상의 빠른 살균 능력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피부 치료에 가능한 혁신적 기술이다.

이날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망한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플라즈마를 활용한 미용기기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엔도비전은 기술 개발자인

문세연 교수를 기술고문으로 위촉하고, 플라즈마 기술 관련 제반 자문 활동을 통한 제품 상용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와 계약을 체결한 (주)엔도비전은 2013년 창립한 의료기기 분야 전문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정은성 기자

'유아 중심 미래교육의 방향 찾으려'

도교육청, 오늘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교원 포럼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 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공동으로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전국 유치원 교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포럼은 국가시책 사업인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의 일환으로, 미래 유치원 교육 운영 방안 모색 및 시·도교육청 간 협업을 통한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은 유아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학부모의 놀이지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5개 유치원을 선정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오

채선 교수의 미래사회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북·전남교육청의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유치원의 사례 나눔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유아교육과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원광대학교 김영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래사회와 유아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현장 토론도 진행한다. 각 발표자가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질문을 토대로 미래사회와 유아교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로도 송출된다. 대면 참여가 어려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 등은 전북교육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bedumov>)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오

중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도교육청, 오늘 사례나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중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진로 업무 담당 장학사와 중학교 진로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로교육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사는 이날 '잡(多)다(多)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진로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은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나누고 교육공동체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미 남성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정은성 기자